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기초한 능동적 가창활동 방안*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홍 승 연**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들 모두가 즐거우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창활동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시하는 학년별 음악 학습요소를 만족할 수 있고 음악성 신장까지 고려한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고든(Gordon, Edwin E. 1927~)의 음악학습이론과 고든 외 몇 학자들이 개발한 3 단계 교수학습 접근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적용은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내에 있는 가창활동 중심의 제재곡들 중 3곡을 선정하여 교수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안점을 둔 것은 제재곡을 익히는 과정에 R.S.T.P. 방식을 도입하고, 곡을 익힌 직후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는 활동과 접목시켜 능동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 주제어 : 가창활동, 음악성 신장,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교사의 범창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능동적 가창활동 방안 제시
- I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3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syhong@gnue.ac.kr)

I. 들어가는 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등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로 규정짓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2). 음악교과 내에 다양한 음악 활동은 결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요 음악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노래 부르기 활동(가창 활동) 역시 ‘음악교과’에서 규정짓고 있는 바와 같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학년별 수준의 음악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역할을 충분하게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창 활동이 가사와 멜로디를 반복하여 단순히 노래를 익혀 부르는 활동으로 그쳐질 경우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래 부르기 활동에 흥미를 잃어갈 위험성마저 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유명 재즈 보컬리스트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을 참관하면서 ‘아이들이 노래방처럼 모니터에 지나가는 글을 보고 어버버버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¹⁾는 우리 음악 교육 현실을 지적²⁾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점점 노래 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의 염려가 비단 한국만의 고민은 아닌 듯하다. 미국 음악교육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NAME 또는

1) 2013. 5. 15(수) CBS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방송된 재즈가수 말로와의 대담 내용.

2) 배승택(2005)의 논문에서도 담임교사가 악곡을 직접 반주하여 가창을 지도하는 경우가 연구집단 3.5%에 지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용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음악교과가 ICT에 너무 치중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MENC], 1995)는 여러 음악관련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과거와 달리 노래 소리가 사라져가는 미국 내 현실을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들은 논의 끝에 ‘Get America Singing ... Again!(미국을 다시금 노래하게 하자)’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미국 전역으로 벌이는 방향을 도출하고, 1996년 미국인이 알아야 할 42곡을 선정 후 선곡(選曲)집을 만들어 각 지역마다 노래 부르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까지 한다.³⁾

교실에서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단면적인 모습만 보면 우리들은 노래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국마다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대중을 사로잡는 곡들로 넘쳐난다. 심지어 동네마다 들어선 노래방은 우리의 노래문화 열기를 대변해 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듣고 싶은 음악을 파일(music files)로 내려 받아 듣는 것은 좋아하는 반면 교실에서의 학생들은 입을 열어 능동적으로 노래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김정희, 2013). 이는 ‘노래를 즐겨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성향과 노래 부르는 횟수가 음 재생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홍승연, 2004. p.249) 결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교실에서의 가창 활동이 학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수학습 방안이 요청되는 대목은 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음악성⁴⁾을 신장시키고 가창활동의 만족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음악과 생활 속 음악에 큰 괴리감(이은 외, 1993)의 존재를 줄이고 심미적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함희주, 1994)인 노래 부르기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3) MENC와 논의를 함께한 단체는 The Society for Preservation and Encouragement of Barbershop Singing in America(미국 바버샵 노래 보존 및 권장협회), Chorus America(미국합창회), Sween Adelines International(스웬 아델라인스 인터내셔널) 등이다. <http://www.menc.org/information/prek12/again.html>

4) 음악성(musicality)과 음악적성(musical aptitude)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 음악교육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음악적성은 음악성에 비해 소질 또는 재능 등 직업과 관련지어 말하는 성격이 강하고, 음악성은 소질과 재능보다는 포괄적이면서 일반적으로 음악에 반응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지어 사용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본다(홍승연, 2012).

Ⅱ. 이론적 배경

1. 가창활동과 음악성관련 선행연구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학생들의 음악성 신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거나 이를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실행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영애(2012)는 노래 부르는 방식에 따라 음정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여 가창 방식에 따라 음높이 정확도에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한다. 유아들의 경우 새로운 곡은 한 중성음절(a neutral syllable)을 이용한 방식 보다는 가사를 넣어 노래한 방식이 보다 더 정확한 음높이로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관찰결과를 내놓았다. 홍승연(2004)은 개인에 따라 음정 조절 능력과 음 인지 능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나타나며, 음 인지력은 문제가 없지만 음을 듣고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주로 노래를 하기를 싫어하거나 하지 않은 경향의 이유였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들의 음 재생능력을 높이거나 정확한 음정과 리듬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하는 노래 부르기 활동은 오히려 음악에 대한 흥미와 기쁨을 잃게 할 수 있어 지양하고, 오히려 가창활동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지도방안이 필요하다(홍승연 외, 2010)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들의 음악적성⁵⁾을 조사한 연구자(2012)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취학직전 아동들의 음정감과 리듬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리듬감은 음정감에 비해 남녀 아동들 모두에게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두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음악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방안을 마련해야함을 보여준다. 물론, 오디오 보유(특히 스마트폰에 내재된 개인 음악재생기기) 확대 등의 음악적 환경 변화는 음정감이 낮은 학생들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

5)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사 연구로 음정감과리듬감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를 얻음(고든의 PMMA[초급음악적성검사도구]가 사용됨).

지만(조충환, 2000), 여전히 음정감이 낮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존재하며 그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이지윤, 1999; 홍승연, 2004)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고자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민과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도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등 현대의 대표적 음악교수법에 기초한 다양한 가창 지도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교육철학과 지도방법이 우리 음악교육 상황에 적합하고(한영은, 2000), 모든 음악 장르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교육방법(이양순, 2003)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지선(2013)의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3학년 음악개념 지도방안’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지도방안을 선보이는데, 수업안의 도입부분은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전개부분에서는 가창곡, 감상곡 통한 개념학습을, 정리부분에서는 해당 차시 음악개념 요약·정리 활동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수업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가창과 관련하여 가사 말(노랫말) 탐구(김기수, 2012; 조순이, 2007) 또는 가창표현이나 가창의 기술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연경, 1999; 고선미, 2004, 2011)과 변성기 가창지도법(이영화, 2011; 고선미, 2001) 또는 제재곡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다만, 초등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관련단원을 위한 능동적이면서 즐거운 가창활동 지도방법 소개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2. 고든의 음악학습이론과 가창활동

1) 음악학습이론의 개략

최근 국내에서는 고든(Gordon, Edwin E. 1927~)의 음악학습이론(Music Learning Theory)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든의 음악학습이론과 가창활동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이유

는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는 방법이 주로 노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의 중심은 오디에이션(audiation)으로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이라 말한다. 고든이 말하는 오디에이션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의 설명(summary)은 물리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음악이나,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음악, 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음악을 듣고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이 오디에이션이라는 것이다. 생각이 언어가 되는 것처럼 오디에이션이 음악이 되는 원리로 설명하면서, 소리 자체가 음악은 아니며 문맥과 내용의 오디에이션을 통해 음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오디에이션 자체는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⁶⁾,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taught)가 가능하다고 말한다(Gordon, 2007a, p.3).

음악학습이론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을 음악학습위계(music learning sequences)라고 부르며(p.21), 이 음악학습이론에는 각 학습단계가 다음 상위 단계의 학습과 연계되는데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p.69).

- skill learning sequence(기술학습위계)
- tonal learning sequence(조성학습위계)
- rhythm learning sequence(리듬학습위계)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의 실제 수업과 목표는 조성패턴(tonal pattern)과 리듬패턴(rhythm pattern)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대략 언어에서의 단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Gordon, 2007b, pp.61-62, 221).

2) 음악학습이론의 실제화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이하 Jump Right In)은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실제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

6) 오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audiation potential)은 타고난 것이라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고든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오디에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Gordon, 2007b, pp.3-5)

교과 교재이자 지도서이다. 어린이들이 음악과 언어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고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언어에서의 단어의 발전과 음악에서의 단어의 발전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Taggart et al, 2000)은 음악 내 충분한 음악적 어휘(speaking vocabulary in music)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은 반드시 먼저 음악 전반의 언어(?)를 들음으로 듣기 어휘(a listening vocabulary)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이 교재는 3 단계 학습접근방법을 제시하고 교수 학습을 진행한다. 이는 악보를 먼저 보고 음악을 익히는 접근 방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음악교수학습의 새로운 방법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의 3단계 접근법이다.

<표 1> 고든 수업을 위한 3단계 학습접근방법(Taggart et al, 2006, p.vi)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	부분		전체
전반에 걸쳐 경험	부분들을 학습		전체를 이해하고 깨달음
교실 활동	학습위계 활동		교실 활동
노래하기 CHANT하기 움직이고 춤추기 악기 연주하기 게임하기 창작/ 즉흥연주하기 음악 읽고 쓰기 연주하기	차별학습 듣기/ 부르기 언어와 연합 부분적 통합 기호와 연합 전체적 통합	추론학습 일반화: 듣기/부르기 일반화: 언어와 연합 창작/즉흥: 일반화, 기호 이론적 이해	노래하기 CHANT하기 움직이고 춤추기 악기 연주하기 게임하기 창작/ 즉흥연주하기 음악 읽고 쓰기 연주하기

7) 예를 들어 단순한 장·단조 조성만이 아닌, 다양한 조성과 박자, 음색, 템포 그리고 양식 등을 의미함.

『Jump Right In』의 교수학습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시에서 모든 활동(1, 2단계 혹은 1~3단계)을 다 한 후에 교재를 펴보도록 하고⁸⁾, 이는 그 차시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했던 활동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pp.3, 5, 35). 특히 학습위계활동과 연계하여 조성과 리듬 패턴 학습을 한 후, 차별학습 내 언어적 연합 단계 또는 추론학습 내 일반화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한 수업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Jump Right In』 교재에 실린 악보

해당 악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실시하는데, 우선, 중심활동은 노래하기와 움직임이다. 화성단음계를 사용한 조성(e 단조)으로 중심음(resting tone)은 ‘라’음이고, 3박자(usual triple)로 점 2분 음표를 큰 박(macro beats)으로 하는 리듬 음절 ‘DU’와 4분 음표를 작은 박(micro

8) 심지어는 교사가 책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나눠주기도 함.

beats)으로 하는 리듬 음절 'DU DA DI'로 구분한다.

학습목표는 1. 화성단음계와 3박자의 곡을 노래할 수 있고, 2. 무계가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움직임의 시각적 모형을 경험하게 하고, 3. 연속적 유연한 움직임을 경험하게 한다.

음악수업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교사가 고든의 범창교수과정(Rote Song Teaching Procedure ; 이하 R.S.T.P)을 사용하여 노래를 가르친다. 이 방법은 매우 독특한 교수과정으로 8단계로 이뤄지며, 단순히 반복해서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주안점을 두고 반복된다. 다음은 고든의 범창교수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2> 고든의 범창교수과정(R.S.T.P)⁹⁾

단 계	내 용	주 안 점
1	T. 해당 곡을 반을 위해 부른다(반주 없이) S. 교사의 노래를 듣는다.	곡 소개, 최대한 아름답게
2	T. 곡을 다시 부르되, 발로 큰 박을 보여준다. S. 노래는 들으면서 발로 큰 박을 따라 표현한다.	큰박(Macrobeat) 구분 및 표현
3	T. 곡을 다시 부르되, 손으로 작은 박을 보여준다. S. 노래를 들으면서 손으로 작은 박을 따라 표현한다.	작은박(Microbeat) 구분 및 표현
4	T. 곡을 다시 부르되, 큰 박과 작은 박을 발과 손으로 보여준다. S. 노래를 들으면서 손과 발로 크고 작은 박을 따라 표현한다.	큰박 / 작은박 구분 및 표현

9) GIML(Gordon Institute of Music Learning: 고든음악학습이론학회)가 제공하는 참고 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과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연구자가 풀어서 적음. <http://giml.org/mlt/classroom/> 과 <http://musiclearningtheory.yuku.com/topic/507/Rote-Song-Procedure> 를 참조.

5	T. 해당 곡 조성의 음계(5음으로 시작하는)를 중성음절로 노래한 직후, 중심음을 노래한다. S. 교사의 지시에 따라 그 중심음을 노래한다.	중심음(Resting tone) 인지 및 표현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하면서 멈추면 중심음을 노래하라고 지시한 후 노래를 부르고 중간중간 멈춘다. S. 학생들은 교사가 노래를 멈추면 중심음을 노래한다.	
6	T. 학생들에게 노래를 머리로 듣도록(오디에이션)하고 다 들은 친구는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표시하도록 지시한다. S. 노래를 머리로 다 들은 친구는 눈을 감고 손을 든다.	오디에이션 능력 기르기
7	T. I도 화음을 중성음절로 부른 후, 첫 번째 음정으로 "Ready Sing"(노래 시~작) 하면 노래를 부르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한다. S.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몇 번 연습한다.	
8	T. 7번 절차대로 한 후, 학생들의 노래를 듣고 개입여부 결정 한다. S. 가사 또는 중성음절(밤밤밤 or 야라람~ or 야라밤~)로 노래한다.	반주와 함께

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Autumn leaves'라는 곡을 충분히 익히게 된다. 학생들은 곡만을 익힐 뿐만 아니라, 이 곡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따라 연주하게 된다. 화성단음계의 조성 과 그 중심음을 비롯해 3박자 계통의 큰 박과 작은 박 등을 습득한다. 이후 제재곡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모양과 무게의 나뭇잎들을 이용해 떨어뜨리면서 나뭇잎들의 움직임을 비교하게 하고 몸으로도 그 나뭇잎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한다(학생들이 노래를 부를 때 교사가 움직이도록 한다).

이 활동이 제재곡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1단계(전체; 교실 활동)로 직

후 2단계인 학습위계활동(부분)으로 이어진다. 이 때 순서는 조성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하고 다음으로 리듬을 지도한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미(e minor의 중심음)’ 음을 중성음절 ‘BUM’으로 노래하면 학생들은 따라하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도 이 음을 노래하게 한 후 ‘이 음이 오늘 배운 곡의 중심음(resting tone)’이라고 말해준다. 바로 이어 교사는 ‘라-도-미(/)’와 ‘미-레-티(ti)-시(si: sol#(\))’ 두 개의 조성 패턴들을 중성음절 ‘BUM’으로 노래하고, 이 두 패턴이 같거나 다른지 학생들에게 묻고, 서로 다름을 인지하게 돕는다. 이는 차별학습의 ‘듣기/부르기’ 단계이고, 바로 이어 언어연합 단계로 들어가 중성음절 ‘BUM’을 계명 솔페지(solfege)로 바꿔서 다시 교사가 제시하면서 첫 패턴을 ‘으뜸화음(I도)’이라 일러주고, 두 번째 패턴을 ‘딸림화음(V도)’이라 말해준다.

조성 패턴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마친 직 후, 교사는 바로 이어서 리듬 패턴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때 사용되는 리듬 패턴 들은 해당 악곡의 나타나는 리듬 꼴 2 개를 선택하여 함께 익히고, 모두 별로 분할하여 정해진 패턴을 함께 연주하고, 교사는 악곡을 노래하면서 활동한다. 첫 듣기/부르기 단계에서 리듬 꼴을 철타 할 때는 ‘BAH’ 라는 중성음절을 이용하고, 이 후 언어연합 단계에서는 ‘BAH’ 대신에 ‘DU DA DI(정규 3박자 리듬 솔페지)’¹⁰⁾를 사용하여 의미부여를 시도한다.

Ⅲ. 능동적 가창활동 방안 제시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들 중 가창활동

10) 리듬꼴 읽기 지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다이의 음절표현과 다소 달라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고든은 코다리와 달리 Bah, Du De, Du Da Di, Du ta De ta 등의 리듬음절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Gordon의 Learning Sequences in Music(2007) Rhythm learning sequence와 rhythm patterns 그리고 rhythm syllables 관련 부분을 참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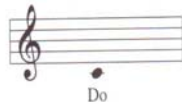
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악곡들을 선정하여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근거로 가능한 활동을 제시해 본다. 교수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R.S.T.P.를 사용하고 곡에 따라 중심음 찾기와 큰 박과 작은 박 구분하기, 그리고 악곡의 내용에 알맞은 신체 움직임(movement) 등으로 구성한다.

1. 소풍

1) 악곡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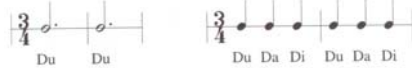
- 조성 : 장조(C major)

- 중심음 :



- 박자 : 정규 3박자

- 큰 박 : 작은 박 :



- 음역 : b - c'

[그림 2] 소풍 악보

- 중심 활동 : 노래 부르기, 신체 움직임

- 목표 :

- 3박자의 장조 조성의 곡을 노래해보자.
- 즐거운 분위기 속에 노래 부르고 친구들과 인사하며 움직여 보자.
- 장조 조성의 중심음에 관심을 가져보자.

2) 수업의 진행

본 수업의 유의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음악 교과서는 덮어진 상태에 진행하고,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한다.

(1) 악곡 듣기와 부르기

① 곡 소개

- T. 반주 없이 소풍 곡 1절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을 위해 노래 부른다. 이 때 교사는 최대한 음악적으로 3박자 소풍이라는 즐거움과 들뜬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② 큰 박, 작은 박 구분하여 표현하기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앞은 채 양발 앞쪽 끝으로 큰 박에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상체를 좌우로 움직이며)로 큰 박을 표현하며 ‘소풍’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양 발 앞쪽 끝으로 큰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앞은 채 이번에는 손끝으로 작은 박들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박을 표현을 표현하면서 ‘소풍’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양 손 끝으로 작은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손과 발을 이용해 큰 박과 작은 박 모두를 함께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과 양 손으로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하며 ‘소풍’을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한다.

③ 중심음 기억하고 노래하기

- T. 교사는 ‘솔-미-도’를 ‘밤(BUM)’으로 노래하고, 도(밤으로 노래함)음을 이곡의 중심음이라고 알려준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전체가 동시에 중심음을 ‘밤’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연습한다.
- S. 교사의 사인에 맞춰 중심음을 노래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노래하면서 멈추고 사인(sign)을 주면 중심음을 노래하라고 지시한 후, 노래를 시작하고 중간 중간 멈추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심음을 노래하도록 사인을 준다.
- T.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S. “밤”(Do 음으로)
- T. “우리는 산으로 놀러가죠~”, S. “밤”(Do 음으로)
- T. “하늘은 드높고~” S. “밤”(Do 음으로)
- T. “우리는 즐겁다~” S. “밤”(Do 음으로)
- T. “꽃들이 웃으며 반겨주네~” S. “밤”(Do 음으로)

④ 오디오이션 하기

- T. 학생들에게 ‘소풍’ 곡을 머리로 듣도록 지시하고, 다 들은 친구는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표시하도록 한다.

⑤ 노래부르기

- T. 교사가 ‘소풍’ 악곡의 I 도 화음을 중성음절로 부른 후 솔(sol)음에 맞춰 “노래 시~작”이라는 예비 구호와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소풍 곡을 1절만 부르게 한다.
- T.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한 번 더 불러 보도록 한다.

(2) 신체 활동

악곡 듣기/부르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곡을 익히게 되면¹¹⁾, 신체 활동에 들어간다.

11) 학생들의 신체 움직임 활동이 보다 몰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외워진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더욱 좋겠으나, 더 많은 반복은 지루하게 하

- T. 교사는 큰 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악보의 둘째 줄 ‘우리는 산으로 놀러가죠~’의 ‘...죠’ 부분에서 한 학생 옆에 멈추어 선다.
- T. 그 학생의 등을 살짝 터치(touch)하면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악수를 청하고, 악수 손을 흔들면서 셋째 줄을 계속 노래로 이어간다.
- T. 넷째 줄을 시작할 때 교사는 악수 손을 놓고, 양손을 허리에 두고 상체를 흔들며 계속 노래를 이어간다.
- S. 교사가 선택한 학생은 일어서서 교사 뒤로 나와 서서 교사를 따른다. 교사와 함께 걸어 다니며, 교사가 둘째 줄 ‘...놀러가죠’ 부분에서 멈추면 같이 멈추고, 옆 친구를 교사가 한 방식으로 등을 터치하면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악수를 청하고, 악수 손을 잡고 흔들다가, 넷째 줄 “꽃들이 웃으며” 부분을 교사가 노래하면 선택된 학생은 친구와 교사의 뒤에 줄을 지어 따른다. 이를 반복해서 반 전체 모두가 일어서게 되면, 모두 ‘소풍’ 노래를 부르며 소풍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자리에 앉는다.

(3)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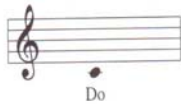
- T. 다음 음을 ‘밤’으로 노래하고 학생들에게 따라하게 한다.
- T. 몇몇 학생들에게 또는 모두 별로 이 음을 따라해 보도록 시켜본다.
- T. 직 후 이 음이 이 곡의 중심음 또는 으뜸음임을 말해준다.
- T.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발로 3박자의 큰 박을, 나머지 반은 손으로 작은 박을 표현하게 한다. 박이 일정해지면 섞어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소풍 노래를 불러 학생들의 리듬 표현에 함께 할 수도 있다)
- T. 학생들에게 발로 표현한 박이 3박자의 큰 박, 손으로 표현한 박이 3박자의 작은 박들이었다고 말해준다.

고 굳이 가사를 외우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교실 내 신체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

2. 구슬비

1) 악곡 이해

- 조성 : 장조(C major)
- 중심음 :



- 박자 : 정규 2박자
- 큰 박 : 작은 박 :



- 음역 : c - c'
- 준비물 : 학급 학생수 만큼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소형 구슬들과 바구니



[그림 3] 구슬비 악보

- 중심 활동 : 노래 부르기, 신체 움직임
- 목표 :
 - a. 2박자의 장조 조성의 곡을 노래해보자.
 - b. 구슬비가 내리는 모양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 c. 큰 박과 작은 박에 관심을 가져보자.

2) 수업의 진행

본 수업의 유의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음악 교과서는 덮어진 상태에 진행하고,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한다.

(1) 악곡 듣기와 부르기

① 곡 소개

- T. 반주 없이 구슬비 1절 처음부터 끝까지 반 학생들을 위해 노래 부른다. 이 때 교사는 최대한 음악적으로 2박 계통의 강세와 악곡의 리듬을 표현하는 한편, 소담스럽고 사랑스럽게 내리는 구슬비의 느낌과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② 큰 박, 작은 박 구분하여 표현하기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앓은 채 양발 앞쪽 끝으로 큰 박에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상체는 좌우로 움직이며)로 큰 박을 표현하며 ‘구슬비’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앓은 상태에서 양 발 앞쪽 끝으로 큰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앓은 채 이번에는 손끝으로 작은 박들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박을 표현을 표현하면서 ‘구슬비’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양 손 끝으로 작은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손과 발을 이용해 큰 박과 작은 박 모두를 함께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과 양 손으로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하며 ‘구슬비’를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한다.

③ 중심음 기억하고 노래하기

- T. 교사는 ‘솔-미-도’를 ‘밤(BUM)’으로 노래하고, 도(밤으로 노래함)음을 이 곡의 중심음이라고 알려준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전체가 동시에 중심음을 ‘밤’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연습한다.
- S. 교사의 사인에 맞춰 중심음을 노래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노래하면서 멈추고 사인(sign)을 주면 중심음을 노래하라고 지시한 후, 노래를 시작하고 중간 중간 멈추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심음을 노래하도록 사인을 준다.
- | | |
|--------------------------|----------------|
| T. (천천히) “송알송알 싸리 잎에 ~”, | S. “밤”(Do 음으로) |
| T. “은 구 슬 ~” | S. “밤”(Do 음으로) |
| T. “조롱조롱 거미줄에 ~” | S. “밤”(Do 음으로) |
| T. “옥 구 슬 ~” | S. “밤”(Do 음으로) |
| T.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 | S. “밤”(Do 음으로) |
| T. “방긋웃는 꽃잎마다 ~ ” | S. “밤”(Do 음으로) |
| T. “송 송 송 ~” | S. “밤”(Do 음으로) |

④ 오디오에이션 하기

- T. 학생들에게 ‘구슬비’ 곡을 머리로 듣도록 지시하고, 다 들은 친구는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표시하도록 한다.

⑤ 노래부르기

- T. 교사가 ‘구슬비’ 악곡의 I 도 화음을 중성음절로 부른 후 미(mi)음에 맞춰 “노래 시~작”이라는 예비 구호와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구슬비’ 곡을 1절만 부르게 한다.
- T.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한 번 더 불러 보도록 한다.

(2) 신체 활동

악곡 듣기/부르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곡을 익히게 되면 신체 활동에 들어간다. 본 제재곡은 다양한 비의 종류(이슬비, 구슬비, 소낙비, 폭풍우 등), 즉 비 내리는 세기에 따라 크고 작은 신체 표현활동이 가능한 점을 착안한 것으로 여기서는 구슬비에 알맞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T. 교사는 큰 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악보의 첫째 줄 ‘송알송알 싸리 앞에~’ 부르다가, ‘은구슬’ 부분에서 잠시 한 모둠 옆에 멈추어 선다.
- T. 교사는 미리 준비한 방울이 든 바구니¹²⁾를 모둠에게 내 밀고, 학생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끈을 잡도록 한다.
- T. 교사는 다시 큰 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악보의 둘째 줄 ‘조롱조롱 거미줄에~’ 부르다가, ‘옥구슬’ 부분에서 다시 잠시 다른 한 모둠 옆에 멈추어 선다.
- T. 교사는 바구니를 모둠에게 내 밀고, 학생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끈을 잡도록 한다.
(T. 모듬이 많을 경우 구슬비의 셋째 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첫째와 둘째 줄을 노래 부르며 나머지 모듬에게 다가가 방울들을 전달한다.)
- T.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부분에서는 남학생들에게 ‘자신이 풀잎이고 손에 들린 방울이 구슬비 방울’이라고 상상하고 ‘대롱대롱 방울 맺힌 모습’을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방긋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부분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이 꽃잎이고 손에 들린 방울이 구슬비 방울’이라고 상상하고 ‘방울 맺힌 꽃잎모습’을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개인별, 짝궁별, 모듬별로 표현기회 줄 수 있음)

12) 노래를 시작할 때 들고 있어야하고 바구니 속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소형 방울들(지름 5cm 미만, 10~15cm 길이의 끈이 연결되어 있도록 함)을 학생 수 만큼 준비하도록 한다.

- T. 교사는 구슬을 걷을 때, ‘비가 맑게 개였네요. 구슬비가 날라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말하고, 다시 노래(중성 음절로 노래하는 것도 좋다: 야람빠빠, 야람빠 등)하면서 회수한다.

(3)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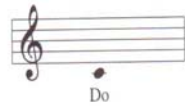
- T. 다음 음을 ‘밤’으로 노래하고 학생들에게 따라하게 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노래 부르는 동안 방금 노래했던 ‘밤(Do 음)’을 잊지 말고 마음속으로 계속 듣고 있도록 한다.
- T. 교사의 노래가 마치면, 개개인 학생에게 ‘밤(Do 음)’을 노래하도록 시켜본다. 직 후 이 음이 이 곡의 중심음 또는 으뜸음을 말해준다.
- T.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큰 박을 ‘DU DU(♩ ♩)’, 나머지 반은 작은 박을 ‘DU DE DU DE(♩ ♩ ♩ ♩)’로 쉼트하게 한다. 박이 일정해지면 섞어서 표현해보도록 한다.(교사는 소풍 노래를 불러 학생들의 리듬 표현에 함께 할 수도 있다)
- T. 학생들에게 ‘DU DU’로 표현한 박이 2박자의 큰 박, ‘DU DE DU DE’로 표현한 박이 2박자의 작은 박들이었다고 말해준다.

3. 잠자리

1) 악곡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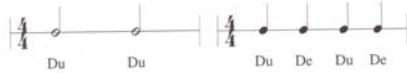
- 조성 : 장조(C major)

- 중심음 :



- 박자 : 4박자

- 큰 박 : 작은 박 :



- 음역 : b - c'

- 준비물 : 1m 길이의 나무 막대기(종이로 그려 만든 잠자리 모형을 나무 막대기 맨 위 부분에 압정으로 달기)



[그림 4] 잠자리 악보

- 중심 활동 : 노래 부르기, 신체 움직임

- 목표 :

- 4박자의 장조 조성의 곡을 노래해보자.
- 매우 여리게 큰 박을 표현하면서 셈여림을 경험해보자.
- 큰 박과 작은 박에 관심을 가져보자.

2) 수업의 진행

본 수업의 유의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음악 교과서는 덮어진 상태에 진행하고,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한다.

(1) 악곡 듣기와 부르기

① 곡 소개

- T. 반주 없이 ‘잠자리’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을 위해 노래 부른다.
이 때 교사는 최대한 음악적이면서 악곡의 가사에 맞게 잠자리를 잡으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여리게 표현)과 잠자리를 놓쳐 버린 부분이 대조가 될 수 있도록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② 큰 박, 작은 박 구분하여 표현하기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앓은 채 양발 앞쪽 끝으로 큰 박에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상체를 좌우로 움직이며)로 큰 박을 표현하며 ‘잠자리’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양 발 앞쪽 끝으로 큰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앓은 채 이번에는 손끝으로 작은 박들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손으로 허리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박을 표현을 표현하면서 ‘잠자리’ 노래를 부른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양 손 끝으로 작은 박을 표현한다.
-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손과 발을 이용해 큰 박과 작은 박 모두를 함께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사는 양 발과 양 손으로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하며 ‘잠자리’를 노래한다.
- S. 학생들은 교사의 노래에 맞춰 큰 박과 작은 박을 표현한다.

③ 중심음 기억하고 노래하기

T. 교사는 ‘솔-미-도’를 ‘밤(BUM)’으로 노래하고, 도(밤으로 노래함)음을 이곡의 중심음이라고 알려준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전체가 동시에 중심음을 ‘밤’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연습한다.

S. 교사의 사인에 맞춰 중심음을 노래한다.

T. 학생들에게 교사가 노래하면서 멈추고 사인(sign)을 주면 중심음을 노래하라고 지시한 후, 노래를 시작하고 중간 중간 멈추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심음을 노래하도록 사인을 준다.

T. “잠자리 날아 다니다 ~”, S. “밤”(Do 음으로)

T. “장다리 꽃에 앉았다 ~”, S. “밤”(Do 음으로)

T. “살금 살금 ~” S. “밤”(Do 음으로)

T. “바둑이가 ~” S. “밤”(Do 음으로)

T. “잡다가 놓쳐 버렸다 ~” S. “밤”(Do 음으로)

T. “젓다가 날려 버렸다 ~” S. “밤”(Do 음으로)

④ 오디에이션 하기

T. 학생들에게 ‘잠자리’ 곡을 머리로 듣도록 지시하고, 다 들은 친구는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표시하도록 한다.

⑤ 노래부르기

T. 교사가 ‘잠자리’ 악곡의 I 도 화음을 중성음절로 부른 후 미(mi)음에 맞춰 “노래 시~작”이라는 예비 구호와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잠자리’ 곡을 부르게 한다.

T.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한 번 더 불러 보도록 한다.

(2) 신체 활동

악곡 듣기/부르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곡을 익히게 되면, 신체 활동에 들어간다.

- T. 교사는 ‘잠자리’ 악곡의 첫 째 줄을 부르기 직전에 학생들에게 ‘잠자리가 어떻게 날아다녀나’고 묻고, 학생들의 대답을 듣는다.
- T. 첫 째 줄 ‘잠자리 날아 다니다, 장다리 꽃에 앉았다’ 부분을 큰 박(2분 음표 하나의 길이)에 맞추어 상체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양 손은 펴서 작은 박(4분 음표)에 맞추어 흔들어 보인다.
- T. 첫 째 줄 연주를 마치면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잠자리가 장다리 꽃에 앉았어요. 잠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가까이 가야 할까요?’라고 묻는다.
- T. 학생들이 살금살금이라고 답을 해주면, ‘네 맞아요. 다같이(개인/분단/모듬/남학생/여학생 별로 활동도 가능) 나와서 잠자리를 잡으러 가볼까요?’라고 권유한다.
- T.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shared space)으로 나올 때, 교사는 미리 준비한 ‘잠자리 모형 막대기’¹³⁾를 가지고 나온다.
- T. 교사는 나온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 첫 째 줄을 작은 박(4분 음표)에 맞춰 걸어 다니며 노래한다. 이 때 아이들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한 손에 ‘잠자리 모형 막대기’를 높이 들고 있다.
- T. 교사가 첫 째 줄 끝부분 ‘앉았다~’를 노래 할 때 높이 들고 있던 ‘잠자리 모형 막대기’를 아이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높이만큼 내린다.
- T. ‘살금 살금~’ 부분은 아주 작게 노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왼 손 검지 손가락으로 입술 가까이 대어 학생들의 노래 소리를 조절한다. 또한 ‘살금 살금, 바둑이가 ~’ 부분을 노래할 때는 모두가 큰 박(2분 음표)에 맞춰 매우 조심스럽게 교사의 ‘잠자리 모형 막대기’로 향해 걸어오도록 한다.(반복해서 다른 모듬이나 개인이 나왔을 때는 ‘바둑’이 대신 ‘OO’라고 학생의 이름을 넣어 부르게 한다.)
- T. 교사는 셋 째 줄, ‘잡다가 놓쳐 버렸다 ~’을 노래 부르면서 모형 막대기를 높이 들어 날아가는 모습과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13) 적당한 크기의 종이로 그려 만든 잠자리 모형을 1m 길이의 나무 막대기 맨 위 부분에 압정으로 고정할 것을 말함.

연출하다가, ‘짓다가 날려 버렸다 ~’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3) 마무리

- T. 학생들에게 ‘DU DU, DU DU(♩ ♩, ♩ ♩)’ 리듬 패턴을 챗 해주고, 이 패턴이 ‘잠자리’ 곡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묻는다. ‘살금 살금, 바둑이가’ 부분이였다고 답을 하면, 학생들에게 ‘큰 박’이었음을 말해준다.
- T. 학생들에게 ‘Du DeTa Du De(♩ ♩ ♩ ♩)’ 리듬 패턴을 챗 해주고, 이 패턴이 ‘잠자리’ 곡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묻는다. ‘잠자리 날아; 장다리 꽃에; 잡다가 놓쳐; 짓다가 날려’ 부분이였다고 답을 하면, 학생들에게 ‘작은 박: 분할 박’이었음을 말해준다.
- T.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DU DU’ 큰 박을 챗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Du DeTa Du De’ 분할, 작은 박을 표현하게 한다. 박이 일정해지면 쉬어서 표현해보도록 한다. (교사는 잠자리 노래를 불러 학생들의 리듬 표현에 함께 할 수도 있다)

IV. 나가는 말

음악과 내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이 음악 수업 활동의 주를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 활동들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가창위한 가창활동, 기악을 위한 기악활동, 또는 감상과 창작을 위한 감상, 창작 활동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만약 가창 활동이 단순히 제시된 악곡의 멜로디와 리듬을 익히고 노래말을 붙여 입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활동이라면 이는 가창을 위한 가창활동이다. 여기서는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들 모두 노래 부르기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는 물론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중 하나는 학교 교실에서 맑고 신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랫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교사는 가르치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수 방안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단순히 의자에 앉아 수동적으로 악보를 보거나 모니터 화면을 보고 노래를 익혀 따라 부르는 활동이 아닌, 학생들이 능동적이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창활동, 여기에 음악적 요소와 내용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가창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이 번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창활동 교수방법을 교실현장에 투입해서 실제 교사와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에 대한 변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남기도록 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별책12]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음악 3학년. 서울: (주)교학사.
고선미 (2001). 변성기의 생리학적 분석과 이에 따른 가창지도방안연구. **이화음악논집**, 5.
____ (2009). 발성조절에 있어서의 피드백의 특성 및 역할연구: part 1. **이화음악논집**, 16(1), 67-90.
____ (2011). 발성조절에 있어서의 피드백의 특성 및 역할연구: part 2. **이화음악논집**, 16(1), 27-51.
김기수 (2012). 가창의 심미적 경험확대를 위한 가사탐구. **음악교육연구**, 41(3), 27-47.
김정희 (2013). 음악과 학습지도안. 문흥 중앙 2013-수업01. 2-9.

- 배승택 (2005). 초등가창수업을 위한 효과적인 ICT 활용방안 연구. **음악교육**, 5, 5-7.
- 이영애 (2012). 노래 부르기 방법에 따른 유아들의 음높이 정확도. **음악교육연구**, 41(3), 251-266.
- 이은 외 (1992). 오늘 한국의 음악교육. **음악과 민족**, 5, 17-30.
- 이양순 (2003).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두뇌와 감각 계발 방법에 관한 고찰. **동서음악연구**, 16, 7-28.
- 이연경 (1999). 아동의 가창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음악교육연구**, 18(1), 115-157.
- 이영화 (2011). 변성기 남자 청소년을 위한 가창지도법. **교과교육학연구**, 15(2), 577-601.
- 이지선 (2013). 달크로즈 교수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3학년 음악개념 지도 방안. **초등음악교육연구**, 14, 86-110.
- 이지윤 (1999). 음치 아동의 음악심리적 지도방안의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조순이 (2007). 노랫말 발음을 활용한 가창지도방안연구. **음악교육연구**, 33, 235-261.
- 조충환 (2002). 음치 학생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창원.
- 한영은 (2000). Emile Jaques-Dalcroze, Zoltan Kodaly와 Carl Orff의 음악 지도법에 관한 비교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함희주 (1993). 가창학습지도를 위한 내용 및 방법. **음악과 민족**, 8, 275-277.
- 홍승연 (2004). 음절 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의 음인지능력과 학업성취도 관계 고찰. **음악교육연구**, 26, 247-250.
- 홍승연 (2012).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들의 음악적성 조사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중심. **음악교육공학**, 14, 210-214.
- 홍승연 · 김연정 (2010). 초등음악수업에서의 효과적인 노래 부르기 지도방안 모색. **음악교육공학**, 11, 167-183.

Taggart, C. C., Bolton, B., Reynolds, A., Valerio, W. & Gordon, E.
Jump Right In : the Music Curriculum, Teacher's Edition Book
1.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Gordon, Edwin E. (2007a). *Study Guide for Learning Sequences in Music*.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Gordon, Edwin E. (2007b). *Learning Sequences in Music: A contemporary music learning theory*. Chicago: GIA Publications, Inc.

CBS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2013. 5. 15. 오전 방송

<http://giml.org/mlt/classroom/>

<http://musiclearningtheory.yuku.com/topic/507/Rote-Song-Procedure>

<http://www.menc.org/information/prek12/again.html>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Instructional
Methods of Singing Activities Based o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 Concentrated on the 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

Hong, Seungyo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of singing activities that improve the degree of satisfaction, participation and enjoyment for the students in music class. Also it includes instructional methods that can satisfy the content and musical elements which the national curriculum requires for the grades in music subject. For this, Music Learning Theory, especially R.S.T.P by Edwin Gordon and three stage approach to learning have been adopted and applied.

In order to apply three songs from the 3rd grade music text book are selected and diverse instructional methods are suggested. For the remark the procedure and ways to model the song in class have been changed and replaced with R.S.T.P and body movements are put into class activities right after learning the songs that can motivate the students to participate the class in a positive way.

key words : Singing activity, Musicality development, Music Learning Theory by Gordon,
R.S.T.P(Rote Song Teaching Procedure)

투고일: 2013년 5월 29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3일), 게재확정일: 8월 12일